

“수확량 적어도 마음 풍족”

익산 마한거사림회 회원들 불우이웃 위한 고구마 재배 수익금 전액 생활·치료비로



고구마 밭을 일궈 자비를 실천하는 마한거사림회 회원들이 9월 3일 고구마를 캐고 있다.

고구마 밭을 일궈 자비 실천행을 펼치는 거사들이 있다.

익산 마한거사림회(회장 박중근)는 9월 3일 익산 외곽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60여 상자를 수확했다.

이날 거사림 회원 30여 명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600여 평에 이르는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포장한 뒤 현지장터를 열어 판매까지 마쳤다.

거사림회가 지난 5월부터 파종과 잡초 제거 등 고구마 농사를 지은 것은 불우이웃에게 자비손길을 펴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다.

거사림회는 4년 전부터 병고로 시달리는 독거노인 2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비 후원까지 맡으면서 회원들의 성금만으로는 어렵게 됐다.

급년 초, 기금 마련을 고민하던 박중근

회장은 “고향에 있는 농토를 무상임대해 줬다”고 밝혔고 거사림 회원들이 선뜻 노력을 제공키로 해 고구마 농사가 시작됐다.

첫 농사를 마친 박중근 회장은 “경험 부족으로 수확량이 적어 아쉽지만 맘을 흘리면서 신심과 친목이 더욱 돈독해졌다”며 “고구마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3명에게 매달 생활 및 치료 후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틈틈이 고구마 밭을 찾은 이근영 거사도 “거사들이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일하다보니 어려운지 몰랐다”며 “농사지는 고구마가 불우한 이웃에게 힘이 되기에 더욱 보람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한거사림회는 2002년 창립된 익산지역 거사들의 신행단체로 매월(첫째 일요일) 사찰순례를 겸한 신행과 자원봉사로 신심을 키우고 있다.

글·사진/익산=이준엽 기자

아미타회상도 13년만에 대중 앞에

백양사, 17일 돌아온 불화 공개

백양사 아미타불이 13년만에 법당으로 돌아와 보살계 수계식을 증명한다.

백양사 박물관장 지선 스님은 지난 4월 “1994년 도난당한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를 되찾아, 오는 17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미타회상도는 윤담을 맞아 백양사가 봉행하는 가사불사 및 보살계수 계식이 열리는 대중전에서 대중들의 참배를 받게 된다.

한편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는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을 근거로 서방 극락세계를 표현한 365×254cm 크기의 대형 탕화로 18세기에 제작됐다.

이 불화는 도난이후 지난 4월 한국불교 미술박물관에서 발견되었으며, 백양사측의 반환요청으로 7월 14일 유물증서와 함께 백양사로 돌아왔다.

아미타회상도를 반환받은 백양사는 보 존조리틀 거쳐 일반에 공개한 후 도난방지 를 위해 백양사 박물관에 보관 전시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빛고을을 불교사진 중심지로 덕림사, 10월 10일까지 작품 공모

빛고을 광주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인정하는 첫 불교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9월 10일부터 10월 10까지 제1회 나르바나 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점수가 부여되는 권위 있는 사진전으로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빛에 관한 사진’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불교와 전통문화, 불교 건축물, 유 무형 문화재를 담은 작품이면 참가할 수 있다.

지역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불교 사진전을 마련한 무이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와 건축물을 사진예술로 한단계 승화시켜 세

계에 알리고자 한다”며 “사진전을 정례화시켜 덕림사를 광주 사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5-11일 덕림사에서 열리는 시왕재 기간동안 전시된다. 이준엽 기자

백제 불교문화 정수 만나보자 정림사지박물관 29일 개관

옛 백제의 수도 부여에 백제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이 생긴다. 부여군은 9월 4일 ‘부여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백제시대의 생활상과 불교문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9월 29일 정림사지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의 상징인 만(卍)자 모양으로 설계된 독특한 건물구조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실은 2개의 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제1전시실에는 백제불교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제2전시실에는 정림사지 복원에 중심을 두고 발굴과정과 출토유물 등을 전시한다. 증충에 있는 기획전시실은 백제사비도성 신자료전을 개최, 백제와 불교를 말합에 있어 타박물관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 노병철 기자

쓸쓸한 추석 걱정되세요?

회암사 ‘달빛아래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10월 1-7일 ‘특별한 부처 체험-달빛 아래 일곱날’이란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개천절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가위 보름달 아래 펼쳐지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매일 밤마다 달빛 아래에서 참선, 부처님 닮은 걸음배우기, 차 마시기, 송편 빚기 등을 대중스님들과 함께 한다.

또한 선원장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의 심우도강좌, 불교기초교리 등의 특강과 법문이 이어지며 산내 임지를 순례한다. (061)782-7600 이준엽 기자

“격식 갖춘 사찰음식 맛있게” 광주 광제사, 천일기도 회향 ‘공양’



도심사찰에서 열린 작은 공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9월 2일, 광주 양동시장 옆 도심 속에 자리한 광제사(주지 석두) 법당 앞마당에서 열린 점심공양(사진). 2003년 광제사 개원과 함께 시작한 천일기도 회향일로 지역 사찰 스님과 불자, 주민 등 100여명이 초청됐다. 광제사 신도회가 기도 회향을 기념해 인연있는 이들과 사찰음식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도 신도회가 마련한 다채로운 사찰음식과 연차를 맛보며 기도 뜻이 깊어졌다.

이날 공양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당 앞마당에서 여유롭게 공양을 하다 보니 사찰 음식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격식을 갖춘 야외공양이 새로운 사찰 공양문화로 보급되기를 희망했다.

주지 석두 스님은 “사찰이 특정한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마음회관 같은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지상세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④ 선정 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는 재가논강. 회가 거듭될수록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논강이 9월 1일 ‘선정 바라밀’을 주제로 진행됐다. 논주로 나선 박건주 전남대 교수(사진)는 “속세의 번잡함 속에서 얻은 선정의 힘은 더욱 깊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속세에 사는 재가자일수록 영명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속서 얻은 선정이 더 큰힘 발휘”

박건주 교수(전남대)는 “대승불교에서 선정은 지혜와 함께 바라밀의 최상에 위치하며, 수행을 통해 맛을 보아야 제대로 논할 수 있기에 어려운 것이 사시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가자들이 선정을 수행자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리타타(自利利他) 보살행은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 얻은 선정의 힘이아말로 조용한 산 속에서 홀로 닦아 얻는 선정의 힘보다 세배나 더 큰 힘을 얻는다”며 “재가자도 현재 처한 각자의 여건에 따라 경론의 가르침을 열심히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현실사회의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법도 경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현실에 적용하는 변용의 기술을 갖게 되어 자연히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선정의 성취를 위해 애쓰다보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며, 선정과 선법을 체계화시킨 중국 천태지의 대사(538-597)가 정리한, 선정 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10가지를 소개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명예와 칭찬을 얻기 위해 △권속을 위해 △남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악도의 과보를 두려워하여 △선심 안락을 위해 △세력과 자재함을 얻기 위해 △지혜를 팔리려고 △범천에 태어나고자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고자 발심 수행하는 것은 선정바라밀법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바른 좌선과 선정을 이야

기하며 “마음에 생각 일어나지 않음을 이룸하여 좌(坐)라 하고, 안으로 자상이 위치하며, 수행을 통해 맛을 보아야 제대로 논할 수 있기에 어려운 것이 사시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가자들이 선정을 수행자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리타타(自利利他) 보살행은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 얻은 선정의 힘이아말로 조용한 산 속에서 홀로 닦아 얻는 선정의 힘보다 세배나 더 큰 힘을 얻는다”며 “재가자도 현재 처한 각자의 여건에 따라 경론의 가르침을 열심히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중은 “재가자를 위한 선정바라밀 수행으로 ‘참회(懺悔)’를 제안한다”며 “참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는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는 것으로 매일 참회정진을 할 때 결국 참회 할 것이 없어지고 보살도를 이루어 궁극에 성불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질의 응답

▲선정을 닦는데 꼭 참선 수행만 해야 하는가?

- 불교수행은 곧 마음수행이다. 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참선뿐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다. 선지식들은 건강, 주력 등 모두를 선이라 했다.

정리=이준엽 기자

다음주 재가논강 - ‘지계’
일시: 9월 15일(오후 7시)
논주: 지현 스님(송광사 월영장)
장소: 광주 원각사 법당
(062-223-3168)

해답지상 스님

“신통이니 묘용이니 무엇을 말하는가(神通并妙用)? 물 길고 나무 나르는 일 바로 그것인 것을(運水與搬柴).”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리는 방거사.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 스님이 『서경(西經)』에서 방거사의 임종개언(臨終開言)을 극찬한 까닭은 무엇인가? 암해선의 장막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불교에서 왜 1200년 동안 ‘방거사 어록’을 한 번도 간행하지 못했을까?

방거사의 입멸 1200주년을 2년 앞둔 2009년, 강설을 맡은 해답지상 스님은 ‘방거사 어록’을 통해 방거사와 당시의 선풍이 우리시대와 한국불교사에 올바르게 조명되기를 바란다.

‘방거사 어록 강설’은 오늘날 교계에서 일고 있는 간화선을 둘러싼 소모적 인논쟁에 앞서 참선(參禪) 본래의 참구법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328쪽 | 값 15,000원

● 해답지상(海答至常) 스님 | 1949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득도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해군 군종법사 대위로 전역,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경기도 검단산 각화사 주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조계종 재산보호위원회 소임을 맡고 있다. 역저서에 『대림 마하변이바라밀경 상·하』, 『반야경의 신앙』, 『반야불교신론』, 『선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은 한 입에 다 마셔라』 등이 있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g

방거석의 비밀한 힘

동산불교대학(2년) 불교장례문화학과 신입생 모집

장례지도사 양성

1. 개설취지

장례문화학과는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묘문화, 상장예의, 장묘제도, 장의와 관련된 직무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게 됩니다. 장례는 단순히 사후처리가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 의식행위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 교과목

과 정	과 목	
1년	· 장례학개론	· 장묘관련법규
	· 상장예인숙학/역사	· 장사법위주
	· 종교와 불교	· 실습
2년	· 공중보건학	· 시신위생처리및 관리학
	· 장례식장경영론	· 현행 장묘제도의 계반적고찰
	· 환경과 풍수지리	· 불교장묘학
	· 실습	· 실습

3. 일 시

2006년 9월 접수중(매주화요일오후7시)

※ 특전: 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자격증 수여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동산불교대학원(3년) 범본 금강경 대강좌

초기 대승경전의 산스크리트본 원전강독

1. 개설취지

초기 대승경전중 반야부의 핵심인 반야심경, 금강경을 산스크리트원전 해석을 통하여 대승사상의 새로운 이해와 반야지혜를 증득하여 사회적 구원을 실천할 불교지도자 육성 강령강독과정입니다.



최홍수 교수

2. 교과목

과 정	과 목	교 수
근본 불교학과 (목)	금강경(1), 금강경(II)	최홍수교수
	선사상	김호기교수
불교학과 (월화)	8천송 반야경	김형준교수

3. 개강일시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4시

※ 특전: 3년과정 수료후 전법사 자격증 수여